

# 지방기업 확대하는 수출입은행

## 지원 비중 매년 급감... 그마저도 80% 이상 영남 편중

### 유망 수출중기 육성 광주·전남 2.7% 그쳐

수출입은행의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영남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21일 배포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기업의 수출 비중이 70% 가 넘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지난 2008년 71.2%에서 2009년 65.1%, 올 9월 현재 57.4%로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더욱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

역별로 보면 지방 여신지원액의 80% 이상이 영남권에 집중되는 등 정책금융 혜택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의 지방기업 지원액 중 영남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지난 2008년 86.4%(28조2206억원)에서 2009년 87.9%(26조6244억원), 올 9월 현재 88.2%(20조4088억원)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호남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08년 9.6%(3조3943억원)에서 2009년 7.9%(2조3943억원), 올 9월 현재 7.2%(1조6632억원)로 극히 낮아졌다. 점차 줄

어지고 있다.

또 유망 수출중기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하든 캠페인' 111개 기업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업 중 수도권은 56개(50.5%), 영남 33개(29.7%), 충청 15개(13.5%), 호남 7개(6.3%)였다. 강원과 제주도 기업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신청 기업 수 대비 선정비율도 수도권 50.4%, 영남 29.7%, 충청 13.5%, 호남 6.3%로 지역간 불평등이 심각했다. 광주·전남 기업은 13개 신청기업 중 3곳이 선정돼 2.7%의 선정 비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지난 8월 현재 여신잔액 기준으로 13.3%를 기록,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기업의 수출액은 2571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71%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수출액은 117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1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수도권·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일반 상업은행보다 더 중소기업과 지방의 수출 기업 육성에 힘써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은행 총재, 크리스티안 노이어 프랑스은행 총재,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벤 버넝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스페인 엘레나 살바도 멘데즈 재무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장관, 웨인 스완 호주 장관, 조지 오스본 영국 장관,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장관. /연합뉴스

# G20 장관회의 '환율전쟁' 해결 모색

### 오늘까지 경주서 열려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장점을 가다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22일 경주에서 막을 올렸다.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오후 3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첫날부터 환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등은 첫 세션인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에서 IMF와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환율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였다.

IMF는 아시아가 선진국발 유동성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가치를 더 절감해야 한다며 미국 등 서방 국가

들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압력을 뒷받침했고, OECD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최근 일시적으로 주춤한 상태로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진 7개국 재무장관들은 공식 일정에 앞서 이날 오전 1시간 정도 별도로 모임을 가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의 재무장관들은 환율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서방국가들이 위안화 절상 압력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가을배추 작황호조 포기당 1300원대 떨어질 듯

농림수산물부는 최근 가을배추 작황이 크게 호전돼 김장철인 11월 하순에는 배추 포기당 도매가가 평년 수준인 13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22일 "당초에는 배추 공급물량이 예상 수요량(140만t)에 비해 18만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가을배추 작황이 호전되면서 생산량이 10만t 이상 증가해 공급부족량이 7만~8만t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월동배추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34만t)에 비해 5만~6만t가량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을배추와 월동배추 조기출하 물량이 겹치는 12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장철인 11월 하순부터는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배추 포기당

도매가가 130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11월 중순까지는 배춧값이 평년보다는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배추 포기당 도매가는 2995원, 무 개당 도매가는 2976원으로, 평년에 비해 배추(1346원)는 123%, 무(758원)는 293% 가격이 높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절임배추 주문쇄도 해남화원공장 1500상자 팔려

전정부지로 치솟았던 배춧값이 급락하면서 김치가공공장 절임 배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한때 1만5000원선까지 치솟았던 배추 1포기 가격이 출하량 급증으로 200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김치가공공장 직원들 얼굴에도 희색이 돌고 있다. 22일 해남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에 따르면 배추 과동으로 지난해 말 10kg들이 한 상자에 7만원까지 올랐던 김치 값을 배춧값이 떨어지면서 예전 수준인 5

만원으로 인하했다.

또 김장철을 앞두고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지난 20일부터 김장 절임배추 예약 주문을 받고 있다.

10kg 한 상자에 2만3000원(택배비 포함)으로 지난해(1만7000원)보다 35% 올렸지만, 예년의 배춧값 등을 비교했을 때 저렴한 수준이라고 화원농협은 설명했다.

지난 20일 하루 동안 1500상자의 절임 배추가 전화주문으로 팔리는 등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영호 상무는 "천정부지로 오른 배춧값에 놀란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 추이를 지켜보면서 김장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절임 배추 주문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난해 배추를 갈아엎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김장철을 앞두고 있어 김치 주문은 많지는 않지만, 가격 인하로 주문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백화점·대형 할인마트 원산지표시 위반 많다

### 작년 74건·올 29건 적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

난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760건으로 단독 장소별로는 백화점 8건, 대형 할인마트 66건, 수입자 367건, 재래시장 69건, 기타 전문점이나 소규모점 250건 등이었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29건으로 이 가운데 백화점에서 단속한 것이 2건, 대형 할인마트 27건, 수입자 211건, 재래시장 17건, 기타 전문점이나 소규모점 134건 등이었다. /연합뉴스

# 인터넷 전화기로 은행 거래

## 광은·농협 '폰ATM 서비스'

광주은행과 농협이 25일부터 인터넷 전화기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폰ATM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결제원은 22일 광주은행과 농협, 기업·SC제일·우리·하나·대구·부산은행과 함께 인터넷 전화기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폰ATM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삼성SDS의 와이즈070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전용 전화기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97.31 (+22.62)
▲ 코스닥지수	523.12 (+0.46)
▼ 금리 (국고채 3년)	3.23% (-0.06)
▼ 원·달러 환율	1,123.00원 (-6.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하나SK카드

5417 0729 5676 9012

HANASK KTR SHIN YONG

최대 외화 50%할인 / 영화 연간 12회 무료 / 주유, 마트, 호텔 2만원 할인 / 학원 배당 1만원 할인

맛있는 음식 과 친절한 서비스

출장뷔페 도시락납품 위탁급식 전문

**파티외식산업**

회갑, 칠순·팔순잔치, 병원개원식,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기념식

시외·시내 출장전문 / 식탁·의자무로지원  
체육대회·야유회 / 연회장 주차장 안내

전남·북서군 지사모집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www.party-food.co.kr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목포지사 061)284-1115  
순천지사 061)723-6003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